



나날이 어린이 신문

지구를 구하는 반바지 ■



회사도 반바지를 입으라는 곳이 많아지고 있어요. 출처 : 광명시

"반바지 안 입는다니까요."

영호는 매일 등교할 때마다 엄마와 전쟁이에요. 엄마는 더우니 반바지를 입으라고 자주 권하지만, 영호는 반바지가 싫어요. 긴바지가 더 멋있고, 맨다리가 보이는 게 창피해서요. 머리카락에서 땀이 뚝뚝 떨어지는 데도 긴바지를 고집하죠.

"겨울 멋쟁이 얼어 죽고, 여름 멋쟁이 더워 죽는다더니. 예휴." 엄마는 한숨을 푹 쉬었어요.

영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옷을 제대로 갖춰 입는 것도 지켜야 할 예절 중 하나니까요. 긴팔 셔츠(여자는 블라우스)에 긴바지를 입는 것이 원래 예절이었어요. 반팔이나 반바지를 입는 것은 예법에 어긋난 것이었죠. 회사나 학교처럼 예절을 지켜야 하는 자리에 갈 때는 예법에 맞춰 옷을 입어야 해요.

하지만 날씨가 더워지면서 여름철 옷 입는 예법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반팔을 입어도 괜찮다고 하는 곳들이 하나둘 늘어나더니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됐어요. 몇 년 전부터는 반바지를 입어도 된다고 하는 곳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는 긴바지 말고 반바지를 입으라고 여기저기서 권할 지경이에요.

반팔, 반바지를 권하는 이유는 시원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돼서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온난화'로 지구가 위기에 처한 지금, 지구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인 거죠. 어쩌면 머지않은 미래에는 반바지를 입는 것이 예법에 맞는 일이고, 긴바지는 그렇지 않은 날이 올 수도 있겠죠?

* 신문 기사를 소리내어 읽어 보세요.

문해력 쏙 

오늘의 단어

권하다 누구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추천하는 것

예법 예의로서 지켜야 할 정해진 규칙이나 방식

온난화 지구의 평균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

독해력 쏙 

영호는 왜 반바지를 입기 싫어할까요?

독해력 쏙 

엄마가 말한 "겨울 멋쟁이 얼어 죽고, 여름 멋쟁이 더워 죽는다더니"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고력 쏙 

반바지를 입는 것이 지구를 구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